

# 수출중기 75.6% “원자재 상승 수익성 악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75.6%는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영향 없음(21.7%), 긍정적(2.7%)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 판매(납품) 가격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45.3%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일부 반영은 45.7%, 전액 반영한다는 업체는 9.0%에 불과했다. 가격 반영을 하지 못하는 이유(미반영 응답 기업)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 판매 가격 반영에 45.3% “못해” 대응책으로 납품가격 조정이 42.3%로 가장 많아

는 '가격 경쟁력 저하(47.8%)', '거래처와의 관계(28.7%)', '장기계약에 따른 단가 변경 어려움(21.3%)'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상승에 따른 대응책(복수응답)으로는 '납품가격 조정(42.3%)'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원자재 외 원가 절감(28.3%)', '대응방안 없음(22.0%)', '원자재 선구매 및 확보(14.7%)', '원자재 대체(12%)', '납품 일자 조정(10%)', '일시적 공장 가동

중단(5.7%)' 순으로 조사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 중점 과제(복수응답)로는 '원자재 구매 금융·보증 지원(36.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납품단가 협상 지원(34.3%)', '원자재 가격 및 수급 정보 제공(30.3%)', '조달청 비축 원자재 할인 방출(20%)', '원자재 공동구매 지원(15.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

업 76.3%는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으며, 영향 없음(22.3%), 긍정적(1.4%) 순으로 나타났다.

물류비 상승에 따른 대응책(복수응답)으로는 '대응방안 없음(58.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바이어에 납품기간 조정 요청(17.7%)', '물류·운송 수단 대체(15.3%)', '수출 물량 축소(9.0%)', '현지(근접국가) 공장 설립 추진(4.0%)' 순으로 조사됐다.

물류비 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 중점 과제(복수응답)로는 '수출 물류비 지원(77.3%)'가 가장 많았으며, '선복량·컨테이너 박스 확대(20.3%)', '물

류 관련 전문 컨설팅 제공(9.0%)', '물류 관련 대책 실시간 공유 및 홍보(8.7%)', '물류 관련 분쟁 지원(8.0%)' 순으로 나타났다.

추진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원자재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해 수출 또는 협력 대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 LX, 공정위에 LG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 훼손 해외 수행사업 차질 예상”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김정렬)가 (주)LG의 신설지주회사 사명 논란과 관련해 (주)LG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LX는 (주)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것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LX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서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영문사명으로 LX는 약 10여 년간 LX 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LG는 신설지주사 (주)LX 외에도 LX하우시스, LX관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언론에 노출하고 있어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 명의 국민에게 혼동과 혼신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 및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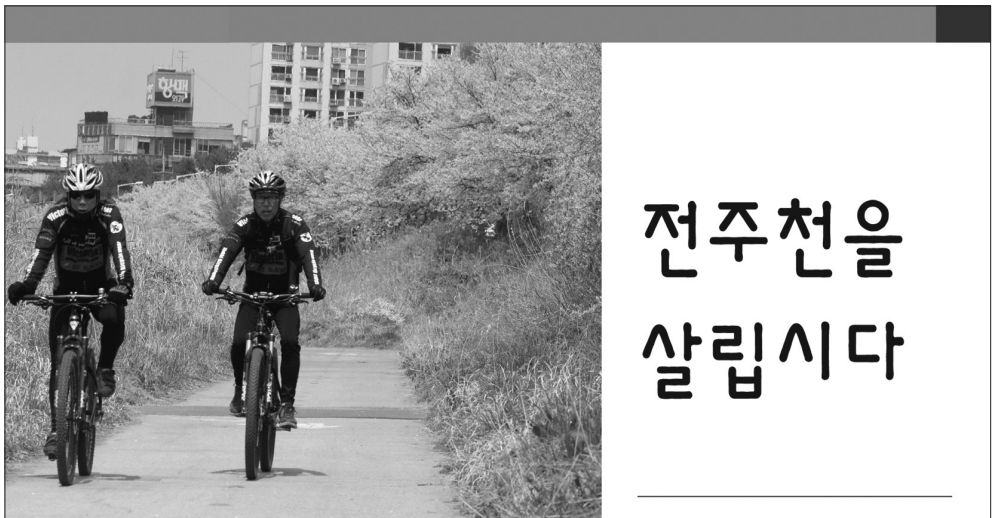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영문사명을 LX로 공사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LX는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으며, 최근 L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추가로 출원했다.

이어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으며, 최근 LBS, LXTV, LX디지털트윈 등을 추가로 출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진안군지부와 진안 관내 5개 농축협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진안군 부귀면 축산농장에서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축사 주변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 전주천을 살립니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하지만 막상 시장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농산물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원산지 표시도 '국내산'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국산 품종이 맞는지 구별하기도 힘들었다.

마침 임씨는 국민정책디자인단에 지원해 국산 품종 농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15일부터 2021년도 국민정책디자인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주부, 청년농업인 등 일반 국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40여 명(4개 팀)으로 구성돼 올해 9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민정책디자인단은 활동기간 동안 우리 후배지, 국내 육성 고구마,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



## 탄소중립, 우리가 먼저 실천

### 전북농협, 진안 농·축협과 미세먼지 저감 나무심기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진안군 지부(지부장 정미경)와 진안 관내 5개 농축협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진안군 부귀면 축산농장에서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축사 주변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진안군지부는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하기 않기, 플라스틱 감축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탄소흡수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 등 다양한 탄소저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경 지부장은 “농협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앞으로 더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 대포통장·금융사기 ‘이제 그만’

### 전북농협, 이달 말까지 도내 영업점서 근절 캠페인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북 관내 농·축협 영업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농협에서는 4월을 ‘대포통장 제로의 달’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피해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관내 농·축협은 점포 내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영업점 방문 고객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대포통장 근절 안

내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등 금융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수법에 농업인과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대포통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농협은 전국 농·축협 창구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은 2018년 279건 69억원, 2019년 754건 155억원, 2020년 1,198건 2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3월말 기준 242건에 50억원의 피해예방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탁상정책 ‘NO’ · 국민 위한 정책 ‘YES’

###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 농진청, 국민 공감 성과 창출 위해 오늘부터 본격

최근 논란이 된 중국 김치 공장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뉴스로 접한 주부 임모 씨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내 육성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하지만 막상 시장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농산물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원산지 표시도 ‘국내산’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국산 품종이 맞는지 구별하기도 힘들었다.

마침 임씨는 국민정책디자인단에 지원해 국산 품종 농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15일부터 2021년도 국민정책디자인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주부, 청년농업인 등 일반 국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40여 명(4개 팀)으로 구성돼 올해 9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민정책디자인단은 활동기간 동안 우리 후배지, 국내 육성 고구마,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 적용,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추진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아이디어(생각) 발굴과 심도 있는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문가를 기 1명에서 2명으로 추가 배치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기존 합동 워크숍(공동연수)을 각 과제별 워크숍으로 변경해 국민정책디자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민정책디자인단은 201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농촌진흥청 이상재 기획조정관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정책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정책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 기회를 넓혀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2050 탄소중립 실현 미래 30년의 비전 토론

### 서부산림청, 설명회 개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지난 13일 K-포레스트 추진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30년 비전 설명회’를 개최해 정책방향을 위한 설명회와 토론을 진행했다.

개청 30년을 맞이한 서부청은 지난 30년의 분야별 사업실적 및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 3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비전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산림정책을 추진하고자 2020년에 비전설정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의 주요 결과로는 벌채-양묘-조립 시스템 구축전략, 경제림육성단지 활성화전략, 산림복지서비스 강화전략, ‘2050 Project’ 브랜드전략, Agenda 선제적 대응전략, 도시·연안지역의 난대림 관리전략, 산림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전략, 2050 서부지방산림청 비전 전략 수립 등이다.

조준규 서부청장은 “이번에 설정한 미래 30년 비전을 토대로 미래세대에 전하는 풍요·건강·행복한 숲속의 서부지방산림청을 만들어 국민의 산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